



천안흥타령춤축제 '2020 한국의 우수 지역축제' 선정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규)이 주최·주관하는 천안시 대표 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가 '2020 한국의 축제 캠페인'에서 우수 지역 축제에 선정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주관한 '한국의 축제 (Festivals in Korea) 캠페인'은 글로벌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유망 지역축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대국민 프로젝트다. 연간 1천여개에 달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공모를 시작, 10월과 11월 두 달간 축제 홍보영상 대국민 평가와 전문 평가단 심사를 거쳐 우수 축제를 선정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선보이는 '참여형' 축제인 '가족과 함께 가면 좋은 행복 축제'로 선정됐다. 7년 연속 문

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춤 축제다. 2019년 123만여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5천여명의 춤꾼들과 15개국·16개 팀 외국 무용단이 참여한 세계적인 축제다.

천안문화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천안흥타령춤축제2020을 취소했다.

재단은 축제의 세계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한류 콘텐츠 'K팝 댄스'를 주제로 축제의 콘셉트인 '춤과 흥'을 재미있게 해석한 ▲ 온라인 참여형 영상 촬영 챌린지 '놀면 뭐해 you?' ▲ 시민주도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축제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인 '천안 흥타령 SCHOOL' 등을 지원했다.

재단 관계자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대 심리에 부응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며, 춤 축제 연속성 유지 발전을 위한 후속 대체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2021'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❶

